

스포주의

만약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하실 생각이라면  
첫 플레이는 사전에 리뷰나 후기 감상 없이 플레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이건 다른 게임, 콘텐츠를 즐길 때도 마찬가지!

## 1. 리뷰 시작 전 잡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플레이 해보지 않았어도  
투 더 문(To the Moon)이라는 게임 한 번 쯤 들어보지 않았나 싶다  
당장 내가 그랬으니까

임포스터 팩토리(Impostor Factory)는 투 더 문을 만든 회사인 프리버드 게임즈의 신작이다  
지난 작품인 투 더 문, 파인딩 파라다이스(Finding Paradise)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시리즈 작품으로  
내가 꽤나 오래 전부터 고대하고 있었던 게임이다

본격적인 리뷰 작성에 앞서 생각해보건데,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작년 12월,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팀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투 더 문이었다

그 때 투 더 문, 파인딩 파라다이스와 시리즈 외전들 전부 플레이하고  
(특히 파인딩 파라다이스는 마지막에 눈물 펑펑 흘렸다)  
너무 재밌어서 다음 작품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투 더 문 다음 작품인 파인딩 파라다이스는 6년 뒤 출시되었다)  
이렇게 딱 플레이한 해에 다음 작품이 나와줬으니 말이다!  
물론 이것도 엄청 미뤄져서 나온 것이긴 하다

그래도 그렇게 미루고 미뤄져서 9월 30일 오전 10시에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태평양시 기준이라 오늘 새벽 2시까지 또 꼬박 기다렸는데  
요상하게 게임 구매가 안 돼서 처음에는 설마 또 연기인가 싶었다 ㅋㅋㅋ  
프리버드 게임즈 공식 페이스북에 가보니 나 같이 대기 중이던 사람들이 댓글에 몇몇 보였다  
스팀 게임 구매 페이지 열심히 새로고침한 끝에  
2시 30분이 돼서야 게임을 구매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

나 같은 경우 분기에서 세이브를 통해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해보는 스타일이고  
대화 스킵 없이 거의 다 읽어가며 스토리를 천천히 즐기는 편인데  
총 플레이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나왔다

친구에게 이 게임 선물하기

Impostor Factory 구매

특별 할인! 남은 시간: 2021년 10월 8일



-10%

₩10,500  
₩9,450

장바구니에 추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스팀에서 게임 가격은 9,450원

## 2. 게임 전반 리뷰 / 팁

크게 게임을 세 챕터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챕터**는 혼란의 연속이다

그냥 어어 이게 뭐지 하면서 스토리 따라가면 된다

스토리 게임이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것 저것 클릭하고 이동해볼 수 있는 자유도가 이후에 비해 높은 챕터이기도 하다

여기서 소소한 팁을 주자면

키보드 조작과 함께 마우스 조작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키보드 조작**

장점: 이동 키와 Shift 키를 함께 누르면 빨라서 이동하기 좋고, 스페이스 키로 대화 스킵하기 좋음

단점: 이벤트 찾기(대화 등)가 어려움

**마우스 조작**

장점: 이벤트가 발생하는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커서가 달라져서 이벤트 찾기에 용이함

단점: 마우스로 이동하다보면 간혹 중간 길목에 걸려서 엉뚱한 곳으로 이동할 때가 있음

적절히 섞어서 이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어서 플레이 시간 단축시키기 좋다

언더테일처럼 이벤트가 많은 편에 속하는 게임이라

이곳 저곳 최대한 다녀보고, 이것 저것 말 걸어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말 최소 두 번은 걸어보기를 추천한다

이벤트 찾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시계를 자주 살펴봐서 더 재밌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챕터**는 이전 시리즈에서의 그 느낌이다

안에서 발자취를 쫓으며 동그란 거 수집하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역방향이라 아니라 정방향으로 간다

후반부 우리의 눈물샘을 털어버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챕터이다

여기서는 이전 챕터처럼 너무 쓰다니지 말고 스토리에 몰입하면 할수록 좋지 않을까 싶다

게임에서도 몰입하라고 명확하게 할 일들을 던져주고 공간을 좁혀서 자유가 많이 제한된다

퀸시와 린리가 만나 인문학과 신경과학 자기 전공 소개하는 부분 보고

문송함은 만국 공통인가 싶었다

**세 번째 챕터**는 일라오이가 생각나는 목직한 축수로 시작

게임 전반에 걸친 떡밥, 이전 시리즈에서 회수되지 않은 목직한 떡밥들이 회수된다

눈물 쏟아지게 만드는 장면도 여기에 있다

아래 해석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들이라 정확하지는 않다

닐이 전작에서 페이를 백업한 목적:  
페이를 의뢰인 정신 세계의 관리자로 만들어  
기초 현실 위 만들어진 세계들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세계의 사람들 또한 행복한 결말로 이끌게 하기 위함

닐이 아픈 모습, 약을 먹는 모습을 보인 이유:  
린리, 어머니의 유전병을 물려받았기 때문

### 3. 게임 리뷰

결국 임포스터 팩토리의 이야기는 닐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기초 현실의 입지도 완전해지진 않는다는 것이 참 흥미롭다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어떤 세계에서도 병 때문에 아이, 반려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했던 린리가  
페이가 만든 세계에서 퀸시와 함께 아이의 결혼을 보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번에도 파인딩 파라다이스 때처럼 평평 울었다  
이렇게라도 해피엔딩이구나 싶어서 그랬나보다

개인적으로 꿈 관련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라벤더를 비추는 별이 되고 싶다면 라벤더처럼 향기롭게 남을 수는 없는  
가끔 쉬어가고 길가의 장미 향도 맡고 싶지만 거기서 꿈으로 가는 길이 멈출까 겁사리 시도할 수 없는  
둘 다 잘 할 수는 없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속되는 것이 현실적이라 더 와닿았던 것 같다

PV 영상에서 도대체 이번에 어떤 스토리를 풀어나갈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전 시리즈와 잘 엮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준 덕에  
4시간 재밌게 게임 플레이할 수 있었다  
세계의 파괴, 닐과 에바의 결혼, 시체, 축수, 고양이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진짜 몰랐다 ㅋㅋㅋ

궁금함이 남는 건 아래 두 가지 정도

1. 3시에 담긴 특별한 의미?

- 3시가 너무 자주 보인다

2. 왜 임포스터 팩토리인가?

- 게임에서 임포스터 신드롬이 언급되기는 했는데 이걸 끼워맞추기 어려워서  
지그문트사의 멸칭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수많은 사람 행복한 임종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해석 같아서 아쉽다

밤새서 그런가 원래도 못쓰는 글이 더 강황하게 쓰였는데 아무튼 진짜 재밌다  
이전 작품 다 플레이하고 플레이 하는 것을 강력 추천!  
게임 내내 쌀밥 땡기게 해서 배고프게 만든 스크린샷 하나 남기고 마무리해본다

